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의 '그밖에'는 띄어야 하나, 붙여야 하나?

(홍다원,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답** '그밖에'로 붙여야 합니다.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의 '그밖에'는 지시 대명사 '그'에 조사 '밖에'가 결합한 구성입니다. 이때의 '밖에'는 '안[內]'과 상대되는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구성이 아니라 '오직 ~ 뿐'이라는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오는 체언에 붙여 써야 합니다.

(1) 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여러 사람이 있다.

나. 상자를 방 안에 두지 말고 그 밖에 두어라.

(2) 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 가지고 있는 돈이 천 원밖에 더 있겠니?

문제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와 조사 '밖에'를 구별해 쓰기가 그리 쉽지 않은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가)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여러 사람이 있다'와 (2가)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별하는 방법은 의미를 따져 보는 것입

니다. 즉 '명사+조사'로 쓰인 (1)의 '밖에'는 '앞말의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즉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의 의미를 나타내고, 조사로 쓰인 (2)의 '밖에'는 '앞말만 해당하는, 즉 그것뿐'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조사로 쓰이는 '밖에'는 다음에 부정어 '없다'나 부정의 의문문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형태는 같으면서 쓰임을 달리하는 것에는 '만, 만큼, 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항상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나오고, 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항상 명사 다음에 나오는 분포상의 특징이 있어 구별하여 쓰기 쉽습니다.

(3) 가.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큼 한가지 않다.

나. 나도 너만큼 그녀를 좋아한다.

(4) 가. 그는 묵묵히 일을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 이 일을 맡아 할 사람은 너뿐이다.

(5) 가. 그 일은 할 만한 하다.

나. 형만 한 아우는 없다.

(3~5)의 (가)의 예들은 '만, 만큼, 뿐'이 의존 명사로 쓰인 예들이고, (나)는 조사로 쓰인 예들입니다.

**물음** 요즘 영어의 'contents'를 '콘텐츠'라고 쓰기도 하고 '컨텐츠'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김정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답** '콘텐츠'가 맞습니다. 외래어는 원어의 발음에 따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contents'는 원어인 영어에서의 발음이 [kɒntents]인데 's'는 '오'로 적

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에서 '오'를 '어'로 적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오'로 적어야 하므로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영어에서의 발음은 [kantentʃ]이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 '칸텐츠'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영국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글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contents'는 '칸텐츠'나 '컨텐츠'가 아닌 '콘텐츠'로 적어야 합니다.

'콘텐츠'란 원래 서적이거나 논문 등의 내용 또는 목차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를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 CD-ROM 등에 담긴 영화나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물음**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추돌’과 ‘충돌’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지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답**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충돌’이라고 써야 옳습니다.

‘충돌’과 ‘추돌’은 서로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추돌(追突)’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을 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와 같이 쓰입니다. 이와는 달리 ‘충돌(衝突)’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선다는 뜻입니다. ‘충돌’은 자동차나 기차가 맞부딪치는 경우 외에도 ‘의견 충돌’, ‘무력 충돌’과 같이 의견이나 군사상의 힘 등이 맞부딪치거나 맞설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가 아니고 마주 오던 승용차와 맞부딪쳐 발생한 사고이므로 ‘충돌’이 맞습니다.

**물음** “머지않아 그가 올 것이다.”가 맞습니까, “멀지 않아 그가 올 것이다.”가 맞습니까?

(이형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답**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부터 따져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으로는 ‘머지않다’가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단어로 굳어졌으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국어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머지 않다’처럼 띄어 쓰지 않고 ‘머지않다’처럼 붙여 써야 합니다. ‘머지않다’를 한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는 이유는 ‘줄지 않다, 팔지 않다, 돌지 않다, 살지 않다’ 등에서는 ‘르’이 탈락하지 않는데, 유독 ‘멀다’만은 어간 ‘멀-’에 ‘-지 않다’가 결합될 때 ‘르’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부터 따져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특수한 뜻을 갖고 있을 때에는 발음상으로 완전히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머지않다’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멀지 않다’는 “여기에서 시청은 별로 멀지 않아.”에서처럼 거리 개념을 말할 때 혹은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에서처럼 과거 시간의 개념에서만 씁니다.

**물음** ‘지정된 곳 외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에서 틀린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답** ‘지정된 곳 외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로 고쳐야 옳습니다. ‘삼가하다’로 흔히 쓰지만 ‘삼가다’가 원래의 말입니다. ‘삼가다’는 ‘삼가(←삼가-+-아), 삼가니(←삼가-+-니), 삼가서(←삼가-+-서), 삼갑니다(←삼가-+-ㅂ니다)’와 같이 활용합니다. ‘삼가하다’로 쓰는 것은 원래의 말이 ‘삼가다’인 줄 모르고 ‘하다’를 덧붙인 데서 온 것입니다.

‘주십시오’ 또한 ‘주십시요’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혼동되는

것은 둘 다 [주십시오]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말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오'는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므로 빠질 수 없는 성분인 데 비하여 '요'는 문장의 끝에 붙어 특별한 의미  
를 더하는 성분으로 빠져도 문장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 가. 물 좀 주십시오.

나. \*물 좀 주십시오-

(2) 가. 물 좀 먹어요.

나. 물 좀 먹어.

'-오'는 (1나)처럼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는 (2나)처럼 '요'를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러므로 '-오'와 '요'는 그것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로 적  
고, 성립하면 '요'로 적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세요/하셔요'의 '-세요/-셔요'는 하나의 어미로 다루므로 이 원칙  
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셔요.

즉 '요'를 생략한 '안녕하세'와 '안녕하셔'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셔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셔요'로 적어야 옳  
습니다.

**물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말없다'를 한 단어로 올려 붙여 쓰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물에서는 '두말 없다'로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말없다'를 붙여 쓴 까닭과 띄어쓰기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오정택,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답** 『표준국어대사전』에서 'X+없다' 꼴의 어휘 중 현재 자주 쓰이는 중요한 것들을 가나다순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없다, 간곳없다, 간데없다, 간데온데없다, 갈데없다, 값없다, 거침없다, 경황없다, 관계없다, 그지없다, 기탄없다, 까딱없다, 꿈쩍없다, 꾸밈없다, 끄떡없다, 꿍임없다, 끝없다
- (2) 난데없다, 느닷없다
- (3) 다름없다, 다시없다, 대중없다, 더없다, 덧없다, 두말없다, 두서없다, 뜬금없다
- (4) 막힘없다, 맛없다, 맥없다, 멋없다, 문제없다, 물샷틈없다
- (5) 밥맛없다, 버릇없다, 변함없다,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부질없다, 분별없다, 분수없다, 빈틈없다, 빠짐없다
- (6) 사정없다, 상관없다, 서슴없다, 세상없다, 소용없다, 속없다, 속절없다, 손색없다, 수없다, 숨김없다, 스스럼없다, 시름없다, 실없다, 짝수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 (7) 아김없다, 아랑곳없다, 어김없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엉터리없다, 여지없다, 염치없다, 영락없다, 온데간데없다, 올데갈데없다, 유감없다, 유례없다, 인정사정없다, 일없다
- (8) 재미없다, 정신없다, 주책없다, 지각없다, 진배없다
- (9) 채신머리없다, 채신없다, 철없다, 치신머리없다, 치신없다
- (10) 터무니없다, 턱없다, 틀림없다

(11) 피차없다

(12) 하릴없다, 하염없다, 하잘것없다, 한량없다, 한없다, 허물없다, 형편없다

‘없다’가 붙는 말을 합성어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기준만 만족시켜도 합성어로 봅니다. 다만 ②의 기준만은 ①, ③, ④의 기준 중 하나를 더 만족시켜야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간에 조사의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예: \*두말이 없이 갔다)
- ② ‘있다’와 ‘없다’가 짝을 이루지 않고 ‘없다’만이 가능할 경우(예: \*보잘 것있다)
- ③ 의미가 특수하게 변한 경우(예: 밥맛없다)
- ④ X가 비자립적인 말일 경우(예: 느닷없다)
- ⑤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예: 맛없다)

‘두말없다’는 ①과 ②의 기준을 만족시키므로 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말없다’로 붙여서 표제어로 올린 것입니다.

위의 ①~④는 합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만 ⑤는 익숙해져서 한 단어처럼 느껴진다는 뜻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그 기준 적용이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 ③의 기준이 적용된 단어, 예를 들어 ‘밥맛없다’, ‘허물없다’ 따위는 특수화되지 않은 원래의 의미, 즉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기가 싫다’,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로는 통사적인 구 구성으로 보아 ‘밥맛 없다’, ‘허물 없다’ 따위로 띄어 씁니다. ‘밥맛없다’, ‘허물없다’는 각각 ‘아니꼽고 기가 차서 정이 떨어지거나 상대하기가 싫다’, ‘서로 매우 친하여 체면을 돌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위의 단어 중 ‘할 수 없다, 설 새 없다’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컨대 ‘할

수 없다'는 중간에 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할 수가 없다) '있다'의 짝도 있으며(할 수 있다) '할 수'라는 말이 자립적인 통사적 구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설 새 없다'도 '설 새가 없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단어로 보기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 분명히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은 앞으로 '할수없다, 설새없다'와 같이 단어로 보아 붙여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⑤만이 적용되어 단어로 인정된 예(값없다, 관계없다, 맛없다, 멋없다, 상관없다, 쓸모없다, 염치없다, 재미없다)는 '있다'의 짝이 모두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값있다, 관계있다, 맛있다, 멋있다, 상관있다, 재미있다)와 '있다'의 짝은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쓸모 있다, 염치 있다)로 나뉩니다. 그러나 '있다/없다'의 짝이 있는 단어 묶음은 위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흥미 없다/흥미 있다', '실속 없다/실속 있다', '의미 없다/의미 있다', '자신 없다/자신 있다', '눈치 없다/눈치 있다' 따위는 한 단어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이상의 설명에 따라 'X+있다' 꼴의 어휘 중 중요한 것을 보이면 아래의 (13)과 같습니다. 한편 (14)는 한 단어가 아니라서 띄어 쓴 예입니다.

(13) 값있다, 관계있다, 맛있다, 멋있다, 상관있다. 재미있다

(14) 눈치 있다, 실속 있다, 쓸모 있다, 염치 있다, 의미 있다, 자신 있다, 흥미 있다

**㉠** '백만여 원'과 '백여만 원'이 의미상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희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백만여 원'과 '백여만 원'은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백만여 원'은 대체로 그 '넘는 정도'가 일 원 이상 만 원 미만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백만



일 원, 백만 이십 원, 백만 삼백 원, 백만 사천 원 따위를 이룹니다. ‘백여만 원’은 대체로 그 ‘넘는 정도’가 만 원 이상 십만 원 미만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즉, 백일만 원, 백이만 원, 백삼만 원, 백사만 원, 백오만 원 따위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만여 원’, ‘백여만 원’에서의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여’는 주로 단위를 나타내는 십, 백, 천, 만 따위의 말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아닌 말에 붙은 ‘삼여 원’은 부자연스럽고, 단위인 십, 백, 천, 만 따위에 붙은 ‘삼십여 원’, ‘삼백여 원’, ‘삼천여 원’, ‘삼만여 원’, ‘삼백만여 원’, ‘삼백여만 원’ 따위는 자연스럽습니다.

‘백만여 원’은 ‘-여’가 ‘만’ 단위에 붙은 경우이고, ‘백여만 원’은 ‘-여’가 ‘백’ 단위에 붙은 경우입니다. 양자는 모두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 때문에 혼동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여 원’과 ‘~여만 원’은 모두 하한선이 비교적 확정적인 반면 상한선은 유동적입니다. 개인의 수 관념에 따라 ‘넘는 정도’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수 관념이 큰 사람일수록 ‘넘는 정도’가 클 것입니다. 또 선행하는 수의 규모에 따라서 ‘넘는 정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오십만여 원’과 ‘오만여 원’, ‘오천여만 원’과 ‘오백여만 원’의 ‘넘는 정도’는 선행 수의 규모가 클수록 클 것입니다.